

# 농민 공익수당 논의 TF 발족

###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 관련 개선사항·성과분석 등 주요안건 논의키로

민관협의체인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 공익수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삼락농정위원회 농민 공익수당 논의 TF'(이하, 전담조직)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2020년도 제3차 삼락농정 운영소위(위원장 이상철)에서 농민 공익수당 논의 전담조직에 대한 구성과 운영계획(안)을 결정한 바 있다.

전담조직에는 농업인단체 추천 5명, 학계와 전문가, 도민, 행정(도와 시·군) 등 11명이 참여해 농민 공익수당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농민 공익수당 논의 전담조직의 주

요 논의 안건은 2가지다.

지난해, 첫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과 농민 공익수당 제도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조조건인 성과분석 등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농민공익수당 논의 전담조직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집행위원장, 전남 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 한농연 전북도연합회 부회장 등 농업인단체 3명과 학계 및 전문가, 행정 등으로 구성해 운영했다.

지난 2018년 1차 구성된 전담조직에서 농민 공익수당 도입방안을 제시해, 지난해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시행할 수 있었고, 지난해 구성된 2차 전담 조직에서는 2021년도 지급대상을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보였다.

한편, 전담조직 구성을 결정한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소위'는 15명 정도 소규모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내 소위원회로서 삼락농정 각 분과와 위원 등이 제안하는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해 행정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철 삼락농정 위원장은 "농업인단체와 협의해 전담조직에 5명을 추천했다"면서 "농민 공익수당이 모든 도민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정책으로 민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새로운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정량평가 시스템 개발

### 안전성평가연구소,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속화·유해인자 탐색 활용 기대

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비알코올 지방간질환(NAFLD)에 대한 3차원 세포모델을 구현하고, 임피던스 측정법을 통해 NAFLD의 진행정도를 비임상 연구단계에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비알코올 지방간질환(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은 알코올 섭취 없이 알코올성 간염과 유사한 조직소견을 보이는 질환으로, 단순 지방간으로부터 간세포 손상과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지방간염과 간섬유화 및 간경변 단계까지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만성 간질환이다.

NAFLD는 비만, 당뇨 등 대사성증후군과 함께 서구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유발되는 만성 간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NAFLD 진행단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침습성 생검을 통한 조직 검사로 표준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적은 조직이 전체 간을 대변하기 어렵고, 관독자에 따라서도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 NAFLD의 치료제 스크리닝 및 후보 약물의 효능을 입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비임상 연구단계에서 NAFLD의 진행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임피던스 연구를 진행했다.

임피던스(Impedance)는 교류 회로의 전압과 전류의 비(比)로 나타나는 복합저항으로 2차원 세포모델에서 사멸 및 세포 형태변화 모니터링에 활용되거나, 인바디 측정과 같이 인체의 체지방량 측정의 원리로도 사용되고 있다.

분자독성연구그룹 연구팀은 임피던스를 활용한 NAFLD 평가를 위해 전도성 액체가 들어있는 마이크로 채널에 3차원 NAFLD 세포모델을 주입시키고 다양한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NAFLD 진행 경과에 따른 세포모델 내 중성지방의 증가, 염증이 의한 세포 확장, 막간 단백질 손상 및 산화 스트레스 등에 따른 경도 증가 등 임상에서 나타나는 NAFLD의 특징을 임피던스 파라미터의 변화를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또한, 3차원의 정상 간조직과 단순 지방간, 지방간염 세포모델에 일정한 입력하에 주파수별로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측정하고, 내·외부 저항값 및 정전용량 변화 값을 이용한 모델링 분석을 통해 단순 지방간과 지방간염을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정상 간조직과 간 섬유화 조직에 입력을 주었을 때 정상 간 조직에 비해 간섬유화 조직에서 저항값의 변화량이 작아져 물리적인 경도가 증가(굳어짐)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 섬유화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NAFLD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법을 제시함으로써 NAFLD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속화 및 NAFLD를 유발시킬수 있는 유해인자 탐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는 임상단계의 NAFLD 진단기준을 이용, 비임상 단계의 간조직 모델에서 NAFLD의 진행정도와 임피던스 변화 간의 상관성을 규명해 새로운 NAFLD 평가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분자독성연구그룹 오정화 박사는 "이번 연구는 간 조직 외에도 심장 또는 폐 등의 타 장기 유사구조체 및 질환 오가노이드 모델 평가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피던스를 활용한 새로운 질환 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AFLD의 정량적 평가 기술은 현재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미국과 일본의 특허 출원을 완료해 등록 심사 중에 있다.

한편, 해당 연구는 안전성평가연구소 기관 주요사업 'BT 융합 인체독성예측 플랫폼 기술개발' 과제에 수행됐고, 연구 논문은 생체재료 공학분야 1위 저널인 'Biomaterials(IF 10.3)'의 제268권호에 올해 1월 게재됐다.

/유호상 기자



'차분하게 답변하는 전교조 전북지부'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13일 전북도교육청 기자회견실에서 '전주예술중·고 교사들의 부당 해고 통보 철회 학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전북도 인재개발원, 486개 도민강좌 무료 제공

전북도 인재개발원이 도민을 위한 평생학습 무료 강좌를 제공한다.

지난 1일부터 2021년 '전북도 도민강좌(jonbuk.npagoda.com)'를 개강해, 외국어, 자격증, 공무원, 인문교양 등 도민들의 다양한 지식습득을 위해 486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외국어의 경우 영어(토익, 토플, 회화 등)와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강좌가 진행되고, 모바일로 내려받기도 가능한 언제 어디서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공무원시험 강의로 무료로 볼 수 있다. 9급 일반행정직부터 세무직, 교정직, 경찰직, 고용노동직의 강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격증은 갱신 없는 평생 자격증으로 40~50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 물류관리사 등의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건강관리, 은퇴설계, 귀촌 등 교양 강좌 부분을 대폭 확충했다.

인재개발원은 코로나19 전부터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는 등 오랜 기간 축적된 온라인 강의 시스템과 경험으로 탄탄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높은 평가는 실적으로도 나타났다. 지난해 도민 강좌 수료 목표인 9,700명 대비 109%(인) 1만559명이 수료하는 등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도민강좌를 원하는 전북도민은 네이버나 다음 등 검색창에 '전라북도 도민강좌'를 검색하거나, 전라북도 도민강좌 웹주소(jonbuk.npagoda.com)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산물벼 인수도·조곡 공매 추진

### 산물벼 인수도 8209톤·조곡은 2차에 걸쳐 1만8647톤 규모

전북도가 지난해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쌀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산물벼 인수도'와 2차례 '조곡 공매'를 추진한다.

산물벼 인수도는 8,209톤, 조곡은 2차례에 걸쳐 1만8,647톤 규모의 공매가 이뤄진다.

산물벼 인수도는 2020년산 공공비축미 산물벼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8일에서 8일 인수 의향조사를 통해 매입 의사를 밝힌 산지 유통업체에 파는 것으로, 오는 3월 12일까지 인도가 이뤄진다.

RPC 자체 인수 희망물량은 2020년산 전체 산물벼 매입량 8,894톤 중 8,209톤이며, 인수업체는 조곡 상태로 판매할 수 없고,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향후 2년간 산물벼 인수도, 공매 등의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 2018년 세 번에 걸쳐 이뤄진 2017년산 정부벼 공매 결과 전북 지역의 쌀이 전국 평균가인 5만1,864원(40kg)을 훨씬 웃도는 5만9,982원의 높은 가격에 낙찰된 바 있다.

이는, 입찰에서 제외된 경기와 강원, 충북 지역의 다수 업체가 선호품종인 신동진을 보유한 전북에 경쟁 입찰하면서 경쟁률 및 가격상승을 유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내 전체 재배면적 11만1,000ha의 67.7%(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신동진 벼는 쌀알이 굵고 찰지며 밥맛 또

한 좋아 도내 RPC에서 상상에만, 천년의 숨씨 등 대표브랜드로 육성돼 온 전북의 대표 품종 쌀이다.

이번 도내 공매물량은 14일 이뤄지는 1차 공매 물량 2018년산 7,065톤, 2차 공매(2월 18일) 물량은 2019년산 1만1,582톤(정곡 기준)이다.

공매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입 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로 참여 자격을 제한해 최소입찰 물량 30톤, 최대 입찰물량 300톤까지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등은 "이번 정부벼 공매에서 도내 쌀이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쌀 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타지역 업체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현영**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건강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반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건강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謹賀新年(근하신년)'

# 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총장 이호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